

2015년 3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8,270,595	전월이월금	11,527,165
지 로	2,301,350	우리은행	3,711,500
국민은행	5,027,070	하나은행	1,151,000
조흥은행	150,000	신한은행	1,270,000
외환은행	747,500	제일은행	240,000
농 협	1,330,000	기업은행	280,000
우 체 국	65,010	지정기탁	47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3,022,88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112,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129,700	약 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1,683,50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1,890,87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5,178,800	심리치료, 문화체험 등 보육지원, 중병치료 지원금	
교육비	526,10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354,400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032,06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8,080,310	잔액(이월금)	190,285

<쉼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3	12	4	31
베다니아의 집	5	3	2	6
벗들의 집	10	0	0	10
마고네공부방	8	0	0	8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5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문

모든 이의 어머니, 국경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서는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복음의 기쁨, 209항)이십니다. 가장 취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는 우리 모두 가장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노예살이의 피해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고통 받으시는 얼굴을 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나그네이며 모든 이의 어머니인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분명 어려운 생활 조건과 온갖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이민과 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이민의 날의 주제로 모든 이의 어머니, 국경 없는 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민족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인 국경 없는 교회는 세상에 환대와 연대의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그 누구도 쓸모없거나 성가신 존재, 또는 쓰고 버리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나온 용기는 우리가 인간의 비참에서 떨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민과 난민, 강제 이주민과 망명자들에게서 당신을 알아 뵈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

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누려온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문화의 특징을 지닌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연대와 친교와 복음화에 새롭게 헌신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신과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가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남의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차원에서 이주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합목적성과 방법과 규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고 헌신적인 기관과 기구들 사이에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주현상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홀로 맞설 수 없습니다. 상호성과 공조, 개방성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주 현상의 세계화에 맞서, 이민들의 처지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도록 사랑과 협력의 세계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민과 난민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마음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가 넓은 마음으로 온 인류 가족을 향한 모성애를 드러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의 마음과 요셉 성인의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이 하느님께서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와 똑같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겨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18일, 6월 후원미사는 15일, 7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3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8명입니다. 그 중 몽골 환아(여아, 19개월)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환아는 생후 19개월 아기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반에 악성종양이 발견되었고 간까지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몽골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4년 10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병원 사회사업실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수술과 통원치료비로 벌써 4천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2차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2차 수술비로 최소 2천 5백만 원의 수술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선금을 입금해야 2차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늦춰야 했고 종양의 확산·전이를 막기 위해 약물 치료만 받고 있었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신문 '사랑이 피어나는 곳' 수술비 모금을 위해 인터뷰를 하고, 모금액이 전달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수술을 위해 본국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차도 팔아 수술비를 준비하였으며, 하루 빨리 수술 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아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그림그리기 수업



입소 자녀의 부모 교육

4. 국민은행계좌 해지 안내

기존 사용 중이던 국민은행 계좌(028002-04-022668)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금주인 미켈라 산티아고 수녀님(살레시오회, 필리핀)이 베들레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든 계좌로 현재 수녀님의 사목지가 이주사목위원회가 아니므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부득이하게 3월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은 다른 국민은행 계좌(093-01-0297-691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